

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위팔위로 1614(상림동 60)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3월 5일(수) 제 3047호



“신입생 여러분 입학축하합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4일 신학기를 맞아 전주효천초등학교를 방문해 입학생들을 축하했다. <사진=전북교육청>

道, 체류형 관광으로 지방소멸 위기 돌파

체류형 관광 활성화 통해 지역경제와 인구 유입 효과 기대
위케이션, 미식관광, 한달살기 등 장기 체류형 상품 개발
관광 소비·체류 일수 증가로 지속 가능 경제·인구 유입 목표

전북자치도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벗어나 ‘오래 머무는 관광’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인구 확대까지 연결하는 전략이다.

전북은 국내외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위케이션, 미식관광, 야간관광, 한 달 여행하기 등 다양한 장기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체험형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 수 증가뿐만 아니라 체류 일수와 관광소비액을 높여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해 위케이션 거점센터를 개소해 117개 기업, 2천70명의 이용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더욱 다양한 위케이션 프로

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배움형 위케이션’을 도입해 차별화를 꾀한다.

배움형 위케이션은 ▲국악 배우기(남원, 고창, 임실), 전통 장(醬) 만들기(순창), 승마 체험(익산) 등 전통문화 체험 ▲미식 투어, 자전거 여행, 별빛 체험 등 MZ세대 감성 레저 프로그램 ▲건강검진+스포츠+휴양 패키지(고창 웰파크시티 연계) 등 해외 재외동포 대상 장기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전북을 ‘일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만들고, 체류형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야간관광을 전북관광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보고 낮보다 더 화려한 전북의 밤을 즐길 수 있도록 야간관광

활성화에도 집중한다. 도가 지난해 말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한 무주의 ‘Twinkle nature City’와 부안의 ‘붉은 노을 푸른 잠, 신 감성도시 부안’ 사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야간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코스 조성으로 전북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야간도보투어, 미디어 아트쇼 등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할 계획이다. 도는 한국 음식문화의 본고장으로서 미식관광을 체류형 관광의 핵심 콘텐츠로 개발한다.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해 3개 시군을 선정, ‘전북 맛 로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전북도는 짧은 여행이 아쉬웠던 이들을 위해 ‘한 달 여행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특히, 전주의 비빔밥, 군산의 짬뽕, 부안의 젓갈, 순창의 전통 장 등 전북의 대표 음식들을 스토리텔링과 함께 관광코스로 연결해 미식 체험을 강화한다.

도는 체류형 관광을 통해 단순한 관광객 유치에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한다. /김은지 기자

전북, 美 통상정책 선제 대응…수출기업 애로 해소

도내 수출기업 7개사와 간담회 개최…애로사항 청취
고환율, 해외 인준비, 물류비 지원 등 어려움 호소
지원사업 확대, 통상정책 대응반 운영…피해 최소화

전북자치도는 4일 완주 다산기공(주)에서 도내 수출기업 7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는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고환율·관세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다산기공(주), ㈜TYM, ㈜원스킨화장품, (주)와이케이, ㈜엘텐인터내셔널, 영패션주식회사, 대두식품 등 수출 중소기업 7개사가 참석했다.

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비용 증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까다로운 인증 절차, 물류비 부담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기업 대표들은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자재 조달 비용이 급증해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는 점을 우려했다.

한 기업 대표는 “환율이 계속 오르면 원자재 수입 비용이 급격히 증가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다른 기업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필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 비용이 부담스럽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도는 환변동보험과 수출보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기업들의 환차손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 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과 해외 규격 인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미국 통상정책 발표 직후부터 ‘수출애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기업들의 수출 피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협력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6개 실국과 도내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대응반’을 구성했다. 도는 3월 중 수출기업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기업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원주=김명곤 기자

도, 2036 하계올림픽 유치전담 조직 7월까지 구성

사전 타당성 조사·중앙 부처 심의 등 준비 박차
대구·충남·전남·광주와 연대…스포츠 외교전 돌입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돼 1차 판문을 넘은 전북자치도가 IOC 회원국가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스포츠 외교전’을 치를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사전 타당성 조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미래유치위원회 현장 실사 등에 대응할 전담 조직을 이르면 7월에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계올림픽 유치 전담 조직’은 전북자치도가 국내 후보 도시 선정을 위해 꾸린 올림픽 TF의 확장판이다.

올림픽 TF의 구성원들은 타 부서와 겹치므로 올림픽 업무를 맡았지만 전담 조직은 추후 인사발령을 통해 별도의 정식 조직으로 꾸려진다. 조직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전북도가 연대하겠다고 발표한 대구, 충남, 전남, 광주 등 지자체의 직원도 파견받을 계획이다.

전담 조직의 역할은 사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심의 및 현장 실사, IOC 미래유치위원회 국내 실사 준비, 국내외 올림픽 유치 홍보 등이다.

우선 급선무는 사전 타당성 조사로, 앞서 전북연구원이 올림픽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중앙부처 규정에 따라 객관성이 담보된 기관을 통해 다시해야 한다.

한국스포츠과학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산업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6곳 중 1 곳이 맡게 된다. 3~4개월에 걸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포함한 ‘올림픽 유치 동의안’을 전북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 이후 국제행사 개최계획서, 대한체육회 승인 자료, 도의회 의결서 등을 첨부해 문체부와 기재부의 승인을 차례로 받아야 한다. 기재부 승인까지는 거의 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담 조직이 실질적으로 꾸려지는 시기는 이르면 7월이지만 그전에라도 인사 발령을 통해 전담 조직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뛰어들었거나 유치를 희망하는 해외 도시가 많기 때문에 동향 파악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 건설인과 함께하는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회장 소재철

“안전한 건설문화, 함께하는 행복동행”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제28대 회장단 및 제7대 대표회원 ”

회장 소재철	윤리위원 조금형	운영위원 김광현	운영위원 안장환	대표회원 강범준	대표회원 박세진	대표회원 윤영수	대표회원 전양재
직전회장 윤방섭	윤리위원 강신길	운영위원 김병학	운영위원 유성희	대표회원 김경진	대표회원 박정순	대표회원 윤정호	대표회원 정규종
감사 윤선학	윤리위원 김만열	운영위원 김성욱	운영위원 윤식	대표회원 김근태	대표회원 박종완	대표회원 이다빈	대표회원 정영주
부회장 정준수	윤리위원 김양희	운영위원 김영욱	운영위원 윤일남	대표회원 김덕수	대표회원 박착하	대표회원 이도영	대표회원 조희창
부회장 김재호	윤리위원 김영랑	운영위원 김영우	운영위원 이홍호	대표회원 김미정	대표회원 서문명숙	대표회원 이병열	대표회원 지명철
원로회원 이호석	윤리위원 나춘균	운영위원 김용태	운영위원 이민규	대표회원 김성	대표회원 서오성	대표회원 이성훈	대표회원 진승원
원로회원 김승희	윤리위원 라규환	운영위원 김종원	운영위원 임재훈	대표회원 김용구	대표회원 손영배	대표회원 이용만	대표회원 진승원
원로회원 이정기	윤리위원 배문식	운영위원 김형주	운영위원 채승석	대표회원 김종현	대표회원 송수호	대표회원 이윤범	대표회원 진용성
원로회원 광병도	윤리위원 양선기	운영위원 김형연	운영위원 최용호	대표회원 김지혜	대표회원 신상엽	대표회원 이정근	대표회원 최기수
원로회원 김승수	윤리위원 이성모	운영위원 박영자	운영위원 한상우	대표회원 김진곤	대표회원 안대순	대표회원 이정택	대표회원 최종욱
원로회원 조병두	윤리위원 이재선	운영위원 소만호	운영위원 안웅진	대표회원 김창수	대표회원 오은숙	대표회원 이혜운	대표회원 최태림
원로회원 이공희	윤리위원 장기현	운영위원 신전만	운영위원 황호영	대표회원 김철빈	대표회원 유득한	대표회원 이현국	대표회원 하태풍
원로회원 박형식	윤리위원 전주형			대표회원 김철상	대표회원 유병수	대표회원 이형우	대표회원 한갑수
원로회원 국중훈	윤리위원 최도성			대표회원 노정창	대표회원 유승욱	대표회원 장영길	대표회원 한갑수
원로회원 최현호				대표회원 박강자	대표회원 유승욱	대표회원 전욱	(기초:성명가나다순)

CAK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TEL : (063)288-3881~2 FAX : (063)285-5290

전북도, 출산율 반등세 견인에 역량 집중

인구정책에 양육·청년 도약 등 190개 사업·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결혼·출산 지원 등 76개 사업 추진

전북자치도가 4일 인구정책 민관위원회 회를 개최하고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영미 호원대 교수(공동위원장), 오현숙 도의원, 저출생·고령화·청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정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출산율 반등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 전북'을 목표로 설정하고 ▲함께 양육하

는 사회 ▲청년이 도약하는 사회 ▲중년과 노후가 활기찬 사회 ▲미래세대가 행복한 사회 ▲외국인 포용사회 ▲생활인구와 상생하는 사회 등 6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1조3천816억원 규모의 190개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도는 올해를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중반기로 보고 그동안 추진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등 출산율 반등세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2025

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이 계획은 ▲결혼·출산 지원 ▲돌봄 확대 ▲특성화 교육 제공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삶의 질 및 지역 활력 제고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1천500억 원을 투입해 76개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적극 반영해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의 핵심 사업인 ▲전북형 반할주택 조성 ▲한방 난임부부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모아복합센터 건립 등을 포함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 인구정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출산율 반등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자치도, '2025 여행가는 달'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전북투어패스 1일권·카페플러스권·관광기념품 100선 및 숙박 할인 등 다양한 혜택 마련

전북자치도가 3월 한 달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여행가는 달' 캠페인과 연계해 다양한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관광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장료 및 숙박료 할인, SNS 인증 이벤트 등 풍성한 혜택이 마련됐다.

도는 각 시군과 협력해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및 할인, 숙박료 및 관광택시 할인, 관광 인증샷 이벤트 등을 진행한

다. 특히 전북투어패스 1일권(33%), 카

페플러스권(30%), 관광기념품 100선(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시군별 특화 이벤트도 운영된다. 대표적으로 전주 완산병기 더 스페이스 1+1 이벤트, 남원 관광택시 50% 할인, 김제 휘게팜 농장 이용료 20% 할인, 쌀 가정만들기 3천원 할인 등이 있다.

숙박 할인 혜택도 다양하다. 완주군은 대승한지마을, 경천에인마을, 소양 오성한옥센터에서 주중 20%, 주말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소양고택과 콩쥐팍쥐한옥리조트에서는 10% 할인이 가능하다. 또한, 호텔원

(주중 30%, 주말 40%), 산속등대(주중, 주말 20%), 고산자연휴양림(3월 무료입장) 등도 포함된다.

진안군은 관광 소비금액에 따라 1만~10만원의 여행 경비를 차등 지급하는 '진안고원 스마트관광 활성화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순창 섬진강마실캠핑장(10%), 선원이글램핑 펜션(20%), 공가네 민박 독채 한옥펜션(추가 요금 20% 할인), 고창 해변승마클럽 승마체험(30%), 부안 관광택시(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됐다.

소비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된다. 임실군과 부안군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SNS 인증을 하면, 임실에서는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4만원 상당의 치즈세트, 부안에서는 30명에게 5천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여행가는 달"을 맞아 다양한 자원과 즐길 거리를 마련한 만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특별한 경험을 하길 바라고, 이를 통해 전북 관광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도, 다자녀 가장들과 저출산 극복 문제 토론 시군별 돌봄시간 상이 등 지방에서의 양육 어려움 논의

사단법인 전북비전포럼은 전북자치도 저출산 극복 문제 해소방안 찾기 위해 지난달 26일, 다자녀 가장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총 3부 구성으로, 다자녀 양육의 현실적 어려움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토론회는 다자녀(3명 이상)를 둔 결혼가정 가장들이 참여한 토론으로 진행됐고, 지방에서의 다자녀 양육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진행됐다.

다자녀 가장들의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다양성 확보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제 제기, 양질의 교육 지원방안 및 시군별로 상이한 돌봄 시간과 교육서비스 문제해소 등이 논의됐다.

2부 임원진 회의에서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들에 대한 후

속 조치가 논의됐으며 향후 저출산 대책관련 포럼의 활동방향을 설정

했다. 3부 순서로는 김관영 도지사가 1시간 동안 다자녀 가정 가장들을 위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으며, 전북도의 저출생 극복 정책과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방안을 소개했다.

김 도지사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다자녀 가정을 두 자녀 이상으로 정의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아이조아 카드 발급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 대상 육아용품 지원 사업 등을 시행 중인 다양한 대응책을 소개했다.

두완정 이사는 "도내 14개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며 균형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E-스포츠활성화법안' 등 3개 법안 국회 통과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E-스포츠 활성화법안 등 3개의 법안이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E-스포츠 발전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국회를 통과되는 등 스포츠 활성화 관련법과 대중문화예술평업발전법 등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E-스포츠법은 지역에

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의 E-스포츠는 대부분의 대회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열리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은 소외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도 E-스포츠 대회가 더 많이 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그동안 K-POP, 트로트 음악, 댄스 등의 분야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들이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참가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취득,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수익금의 기

금 출연 관련 규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아 법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바로 잡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지방이라는 이유로 문화향유에서 소외되서는 안되며, 미래 신산업으로 대표되는 게임산업과 E-스포츠 산업이 전북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 골고루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윤준병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자체와 주민 협의 절차 의무화해 갈등 해소하는 방안 마련"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정읍시 고창군)이 원전 신설과 수명 연장 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절차를 의무화하는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도 고리 1호기 원전에서 발생한 전원공급 중단 사고로 안전성 문제가 중대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상 발전용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가 과정에서 지자체나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때때로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신설이나 실제수명이 만료된 원전 시설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매번 원전 신설이나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 주민간에 갈등이 빚어졌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과 협의하는 절차를 의무화해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 기자

조배숙 의원, 신뢰받는 선거 환경 조성... '선거관리시스템 문제'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조배숙(비례대표,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선거관리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발

전·보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사전투표제도와 전자 투·개표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직선거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주장해 온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가 '대한민국 공직선거관

리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해 발제를 나간다.

이어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아 배재대 김형준 석좌교수, (사)자유수호국민운동 이두호 이사장 그리고 숙명여대 김영원 명예교수(前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휘원 임법팀장이 토론자

로 참여해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조 의원은 "최근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토론회를 통해 선거관리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주시, 문화 분야 출연기관 조정 마무리

전주문화재단·한국전통문화전당 기능 통합 및 관광산업 이끌 ‘전주관광재단’ 설립

전주시의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설립된 (재)전주문화재단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의 기능이 통합된다.

동시에 시는 전주 관광산업을 이끌 새로운 출연기관인 ‘전주관광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문화 분야 출연기관 조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문화·관광 분야 거점기관들과 함께 힘찬 새 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출연기관 혁신방안 및 실행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전주문화재단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의 기능을 통합하고, 관광 사

업 대폭 확대에 따른 관광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따라 배경으로 전통문화전당을 관광재단으로 전환하는 문화 분야 출연기관 조정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조례 제·개정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전주문화재단은 기능 통합을 위한 정관변경 등의 사전절차를 거친 후 지난 2월 이사회를 열어 조직 개편과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등기 변경 등을 통해 통합 준비를 마쳤다.

이로써 전주문화재단은 3월부터 기존의 문화예술과 생활문화분야 진흥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보존과 진흥 기능까지 확대

해 지역문화진흥법 상의 지역문화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명실공히 전주 대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게 됐다.

이를 위해 전주문화재단은 기존 1국, 1관, 10팀(47명)에서 통합 후 3실, 1원, 1부, 15팀(88명)으로 확대되고, 현장사무실을 제외한 재단본부도 팔복예술공장(덕진구 구렛들1길 46)에서 한국전통문화전당(완산구 현무1길 20)으로 이전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문화예술과 전통 문화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관광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광산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문화전당을 ‘전주관광재단’으로 전환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전주관광재단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돌입해 직원 채용과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하반기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기능을 통합해 출범하는 전주문화재단이 전주문화생산의 핵심기지로 전주만의 고유한 문화 브랜드를 창출함으로써 대한민국 문화도시로의 성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평화2동 찾아 주민들과 대화나서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여섯 번째 일정…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신속 추진 등 질의응답 진행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력을 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4일 평화2동주민센터 대화의실에서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일정으로 평화2동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섰다.

이날 평화2동 방문은 우 시장이 올해 35개 동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력을 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장정 중 여섯 번째 일정이다.

평화2동은 도·농 복합동으로 현재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및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남부권 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이은혜 평화2동장의 동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시정운영방향 공

유 ▲시민과의 대화 등 순으로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2025년 시정 목표인 ‘확실한 변화! 함께 여는 전주의 큰 꿈!’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민생) ▲미래 광역도시 대전환(도시) ▲강한 경제 일자리 도시(경제) ▲글로벌 으뜸 문화산업(문화) ▲일상 속 신바람 복지(복지) 등 5대 분야 18대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우 시장은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평화2동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와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평화2동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신속 추진 ▲평화2동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건의 ▲평화1어린이공원 보강 등 주민들의 주요 현안 관심사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에 우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즉각적



인 답변한 후 해당 부서에 시민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전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었다”면서 “전주의 확실한 변

화를 보여주고 시민들이 행정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이 담긴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견인 유예 시간 단축

시민 통행 불편 증가·안전 위협…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속 기준 강화

전주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 견인 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예방하고, 운영사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최근 시민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행로와 도로변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차가 금지된 횡단보도 앞과 접자블록 위, 교통섬 등 주요 보행 공간을 점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들의 보다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는 더욱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이용자 역시 이용 후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는 방치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

시는 보행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하고, 2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시니어클럽 활동으로 ‘전동킥보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불편 해소에 힘쓰고 있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주차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 안내 전단지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최근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안전교육을 의무화한 ‘킥보드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김영태 기자



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발표…건강 수준 긍정적

월간 음주율 전국 평균보다 낮아…흡연율·구강건강 등 총 18개 지표 개선

전북자치도가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도민들의 건강 수준과 생활습관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4년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19세 이상 도민 1만2천374명(시군별 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국 258개 보건소에서 매년 진행되는 이 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별 맞춤형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시·군·구 단위의 건강 통계

를 분석하고 지역 간 비교를 통해 보건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사 결과, 전북자치도의 월간 음주율은 53.5%로 전국 평균(58.3%)보다 낮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현재 흡연율, 구강건강, 고혈압 치료율을 포함한 총 18개 지표에서 전년 대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며, 도민들의 건강관리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율의 경우 32.2%로 전국 평균(34.4%)보다 낮았으나, 최근 1년 동안

체중 조절을 시도한 비율과 걷기 실천율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지역별 건강수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할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은 “도민들의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속 건강 실천 문화를 확산시켜 도민 모두 건강한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주페스타 2025’, 분산 개최
가을철 축제 시즌으로 묶어내

전주시 대표축제인 ‘전주페스타’가 전주의 다양한 축제들과 함께 올해도 관광객을 맞이한다.

시는 ‘전주페스타 2024’와 ‘2024 전주 시민체육대회’를 끝으로 전주종합경기장 철거가 시작됨에 따라 대체 장소 등 향후 축제 추진 방향에 대해 검토한 결과, 축제의 규모와 관람객 편의, 추석 연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전주페스타 2025’를 분산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열리는 ‘전주페스타 2025’는 가을철 전주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축제를 하나의 시즌으로 묶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통합홍보 강화와 연

전주시, ‘지역관광추진조직 성과평가’ A등급

전주필경·맛집 투어패스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

관광거점도시인 전주시가 관광 분야의 민관 협력사업을 잘 수행한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됐다.

시는 4일 서울 롯데호텔 가넷스 위트홀에서 열린 ‘2024년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시상 및 성과 워크숍’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으며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5개년차 관광거점 민관 협력 육성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한 DMO 육성지원 사업은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내 다양한 거버넌스(공공, 민간, 지역주민 등) 협력을 통해 자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

DMO는 관광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연계망을 통해 지역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관광 현안 해결 및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전문조직으로, 시는 지난 2021년부터 민간

법인인 ㈜전주관광마케팅을 DMO 사업자로 선정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 전주시 DMO는 지난해 ▲전주필경 ▲아트워크엣나잇 ▲전주맛집 투어패스 ▲자전거여행 페달투어 등 인기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마쳐 생활인구 유입증대와 관광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자생할 수 있는 관광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했다.

그 결과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내 다양한 거버넌스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전주시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DMO 육성 지원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둔 만큼 올해도 DMO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직접 관광 연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조직이 자립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종광대2구역 현지보존…보상 절차 돌입

전주시 인후동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견된 후백제 성벽 유적이 현지보존되고, 조함과 조합원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전주시는 후백제 시기 도성으로 추정되는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의 보존방안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매장분과 회의에서 조건부가결(현지보존)이 나오에 따라 조함과 협의해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종광대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부지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시굴·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자연 지형을 활용한 토축 성벽 200여 미터가 발견됐다. 이는 1942년 출간된 ‘전주부사’에서 후백제 도성벽으로 표기된 곳에서 실제 유구가 확인된 것이어서 역사성을 더하고 있다.

정비사업 부지 내 매장 유산이 현지보존으로 결정되면서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매장 유산의 보호를

위해 중단된다.

이에 시는 조함과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무산에 따른 투입비용과 조합원에 대한 보상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재개발사업이 무산된 특수성을 고려하고, 관련 사례도 드문 만큼 감정평가·법률·회계·도시정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보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상은 관계 법령에 근거해 행정절차와 전주시의회 동의 거쳐 진행되며, 시는 이 과정에서 조합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해당 유적에 대해서는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해 후백제 왕도 전주를 대표하는 핵심공간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치매안심도시 구현 위한 문화강연 마련

전주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강연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 치매안심센터는 4일 덕진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치매 환자 가족과 돌봄 종사자,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안심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지난 1월 열린 강연에 이어 두 번째 마련된 치매 주제의 특별강연이다.

이날 강연에는 박종일 전북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올바른 치매의 이해 및 예방’을 주제로 ▲치매의 정의 및 유형 ▲진단 방법 ▲인식 현황 및 문제 ▲위험요인 및 예방수칙 등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한 돌봄종사자는 “이번 강연을 통해 치매 환자를 이해하고 편견을 깨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치매 노인을 돌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태 기자

계 콘텐츠 운영을 통해 전주페스타 축제 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시는 성공적인 전주페스타 2025 개

최를 통해 관광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다소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도, 지속성장가능 창업·벤처기업 생태계 조성 총력

창업기업 성장 주기별 맞춤형 창업 지원 강화...민간주도 기술창업으로 도내 기업 TIPS선정 증가
비수도권 최초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지역센터’ 개소...1조 규모 벤처펀드 조성 전북 기업 투자 유치 활력

전북자치도는 지역경제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내 창업기업 성장지원, 도와·해의 유망 스타트업 유치, 벤처투자 활성화 등 분야별 다양한 지원으로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성장 주기별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해 예비 창업패키지(예비 창업가), 전북형 창업패키지(5년 미만 창업기업), 창업 도약패키지(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 등 사업추진을 통해 사업별 최대 6천만원~3억원의 사업과 자금과 투자유치, 마케팅 등 창업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과 협력해 창업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사의 선별·보육 역량을 활용해 도내 기술창업 기업의 성장 가속화 및 국비 R&D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지역특화산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TIPS운영사를 확대, 도내 TIPS선정기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 특화분야로 데이터에 핵심가치를 둔 데이터 활용 기반의 우수 서비스를 가진 창업기업을 지원,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데이터 기반 기술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도와 및 해외 유망 스타트업 도내 유치·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타 지역에 기후테크 특화지역으로서 전북을 홍보하고 도내의 유망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유치를 위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경진대회'(기업가치 100억 이상 성장트랙, 기업가치 100억 이하 신규트랙)를 개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법 제65조에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조항을 반영하는 등 외국인 창업이민 정책의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국인 창업자와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바운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비수도권 최초로 법무부·중기부가 공동 지정하는 '글로벌 창업이민센터의 지역센터'에 선정돼 6일 개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나 투자사의 90%가 수도권에 소재, 대다수 벤처투자는 수도권에 편중돼 전북의 투자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도는 민선 8기 출범 후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1조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해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속 가능한 전북형 벤처투자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신규로 추진하는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 사업은 전북 벤처펀드 31개 운용사 컨소시엄을 활용해 도내 유망 창업·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최준호 기자



도,獨 잘란트주와 글로벌 바이오 협력 강화

잘란트주 경제부총리 전북 방문...바이오수소에너지 기업 간담회

전북자치도는 4일 도청에서 전북을 찾은 독일 잘란트주 부총리(경제·혁신·디지털·에너지장관) 및 잘란트경제진흥공사 대표단과 도내 바이오·수소·에너지 분야 기업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잘란트주 부총리 위르겐 바르케, 잘란트경제진흥공사 대표 토마스 슈크 등 독일 대표단과 도내 기업의 독일 진출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다.

이어서 전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전북의 바이오 기업들과 잘란트주 부총리(경제·혁신·디지털·에너지장관) 및 잘란트경제진흥공사 대표단과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전북의 9개 바이오, 수소, 에너지 분야 기업들이 참석해 독일 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나무숨, 함소아제약, 프롬바이오, 주영바이오, 레드진 등 기업들은 잘란트주의 투자 환경을 소개받고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했다. 대표단은 환담에 앞서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과 (쑤카이바이오텍을 방문해 방사선의약품 개발 현황을 듣고 전북의 바이오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

다. 간담회 이후에는 새만금 에너지 융복합산업단지를 방문, 에너지 산업의 미래 비전과 새만금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독일 잘란트주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자동차, 철강, 세라믹산업 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을 포함한 첨단 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어 유럽진출의 교두보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 잘란트주에 위치한 KIST유럽연구소 내에 전북의 바이오 기업들과 잘란트주 북글로벌BIO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해 양 지역 간 공동 연구 및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잘란트경제진흥공사는 잘란트주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에게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컨설팅, 산업부지 개발, 보조금 신청, 허가 절차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해 9월 잘란트경제진흥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양 지역 기업 간 긴밀한 협력과 공동 연구, 투자 유치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도,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축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맞손'

㈜중앙축산농업회사법인·전국한우협회 전북지회와 협약 체결...안정적 판로 확보, 도축장·도매시장 운영 추진

전북자치도가 도내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개장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4일 ㈜중앙축산농업회사법인, 전국한우협회 전북지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 축산물 도매시장 개장 및 운영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지역 한우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 ▲소비 촉진을 위한 공동 마케팅 및 홍보 추진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도내 한우농가는 도축장을 통해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장거리 출하에 따른 경제적 손실



전북자치도가 도내 한우농가의 안정적 경영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개장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는 축산물 도매시장 내 전자

거래 시스템을 도입해 한우 유통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기존의 수기

방식(구두경매)에서 벗어나 온라인 기반 실시간 경매 시스템을 구축, 전국 어디서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한우 출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자경매 도입으로 한우농가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출하 기반을 확보하고 축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축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전방위 지원...2025년 종합계획 수립

4대 추진전략, 19개 주요 과제 추진, 지역 건설업체 본격 지원...공공 건설공사 상반기 65% 신속 발주 지역건설사 일감 제공

전북자치도가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점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도내 건설업체 위기 극복과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목표로 ▲지역 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 ▲지역업체 보호 및 우대제도 확대 ▲건설사 경쟁력 강화 ▲수주지원 및 민·관 상생협력 강화 등 핵심 전략을 담고 있다.

우선, 전북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내 도내 공공 건설공사의 65% 이상(3조

1천12억)을 신속히 발주해 지역업체에 일감을 조기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100억 이상 대형공사(46건, 3조5천649억)는 지역업체 도급·하도급 참여율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수주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신규 발굴 추진하며, 지역업체 보호 및 우대제도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북특별법' 특례를 반영해 공공공사 공동계약 시 지역업체 최소 자본

율을 30%에서 40%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공장신속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가 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를 위해 공공공사비 현실화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업체가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대형 신규사업장의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 생산자재 및 인력 사

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시군·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지역 건설업체 홍보 세일즈' 활동을 추진해 대형 건설사의 지역업체 활용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국민연금, 공공데이터 제공 6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행안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개방·활용, 품질 3개 평가영역 모두 우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6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공단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117종의 데이터를 개방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이 중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 중인 파일데이터 75,508건 중 2번째로 많은 누적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이 데이터에는 사업장별로 가입자 수, 보험료 고지금액, 사업장 탈퇴일 등 정보가 담겨

있어 ▲코로나19 지원금 ▲휴·폐업 사업장 지원 정책 ▲기업 신용평가 등에 참고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됐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은 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3가지 평가영역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으며, 공공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2019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우수' 등급을 이어갔다. 특히 적극적인 이용자 의견 수렴·반영, 데이터 표준 준수 여부 준수조사 등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중점 추진한 결과, 품질 평가영역에서 45점 만점 중 43.37점의 고득점을 받았다.

김태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디지털플



랫폼정부 정책에 발맞춰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방해, 국민 실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삼겹살데이' 맞이 돼지고기 일제 점검...원산지표시 위반 7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농관원 전북지원')은 삼겹살데이(3월 3일)를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돼지고기에 대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해 7개소(거짓표시 6개소, 미표시 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에 국내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식육점을 대상으로 원산지명예감시원 활용 시료 180점을 채취해 사전 분석했으며, 외국산과 국산을 혼용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 점검을 실시했다.

농관원전북지원 김민욱 지원장은 이와 같이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

전북은행, 'OECD 국제금융주간' 기념 금융교육 진행

3월 한 달간 청소년 체험자 대상 특별 굿즈 증정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 JB플랫폼(PLATFORM)에서는 OECD국제금융주간(GMW)을 맞아 '내 돈의 주인공은 나!'라는 주제로 3월 한 달간 특별 금융교육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국제 금융주간을 기념해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개인 및 단체로 참여 가능하다.

디지털 금융 체험, 금융보드게임, 용돈 지킴이 등 다양한 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참가자에게는 JB플랫폼 특별 제작 굿즈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 제작 굿즈 소진 시에도 JB플랫폼 체험 및 JB굿즈 수령은 가능하며, 이벤트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다. 보다 자

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금융에듀테인먼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실용적이고 흥미로운 금융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참가자들이 올바른 경제 가치관을 형성하고 금융지식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JB플랫폼은 프로그램 체험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과 오후 2회차로 운영되며 회차 당 15명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및 문의는 JB플랫폼 홈페이지 및 전북은행 사회공헌홍보부(063-250-7465,7405)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호 기자

전북농협, 지역 농촌 희망 장학금 1억2천만원 지원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달 28일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지점 3층 회의실에서 농업인 자녀 양육을 위한 안정적 생활지원과 농촌지역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차세대 리더가 되길 희망하는 '농촌 희망 장학금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 최승운 김

제시조함운영협의회장, 김유원 김제시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 농가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농협재단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전북지역 271명 농업인 자녀에 126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학습기회 확대 및 학업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북농협은 기대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의 중학교 진학선물이 돼 기쁘다”며 “농협의 지원을 잊지 않고 농촌을 위해 배울 수 있는 인품을 갖추도록 키우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준호 기자

정읍시, 국립숲체원 조성 본격화…주민 의견 수렴 나선다

정읍시가 산림 체험교육과 건강 증진을 위한 국립숲체원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오는 8일 오전 11시 연지아트홀(정읍시 중앙로 73)에서 개최한다.

국립숲체원은 국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 속에서 편안한 휴식과 건강증진, 교육·문화적 가치를 제공하는 특성화된 산림 체험 교육 시설이다. 현재 전국에 국립형성 숲체원을 포함해 6개소가 운영 중이다.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총 270억원의 녹색자금을 투입해 복면 복흥리 산 226-1에 국립숲체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성 대상지까지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38억원을 투자해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들이 국립숲체원 조성과 관련한 기본계획 구상안을 발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조성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립숲체원 조성은 정읍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설명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운영

익산시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확대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익산시는 ‘2025년 대한민국 집중안전점검’을 앞두고 주민이 직접 시설의 안전 점검을 요청하는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의 소규모 생활 밀접 시설이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시설과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 중인 시설, 법적 점검이 이미 진행 중인 시설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점검 대상을 선정할 후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설은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점검을 받게 되며,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신청제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생활 속 안전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며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공동주택 주민 화합 돕는다… 최대 500만 원 지원

정읍시가 공동주택 입주민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 갈등 해소, 친환경 실천 체형, 재난·생활 안전, 주민 화합 행사, 이웃 돕기·사회봉사 등 5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필요성과 공동체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에 따라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오는 13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지역활력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 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영원활력센터 본격 운영

준공식 개최… “주민 공동체 형성 중심·지역 발전 위한 활발한 주민 참여 기대”

정읍시 영원면 주민자치센터인 영원활력센터가 지난달 28일 준공식을 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학수 시장, 윤준병 국회의원, 고경윤 시의원, 권동임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주민위원장, 김규삼 영원면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영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추진 경과보고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사업 관계자 감사패 수여, 환영 사·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권동임 주민위원장은 “영원활력센터 준공을 위해 힘써준 정읍시와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곳이 주민 공동체 형성의 중심이 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활발한 주민 참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영원활력센터가 단순



정읍시 영원면 주민자치센터인 영원활력센터가 지난달 28일 준공식을 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한 공간을 넘어 주민 복지와 소통을 위한 거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원면 주민자치센터인 영원활력센터는 부지면적 5737㎡, 연면적

582.45㎡의 지상 1층 규모로 강당, 급식실, 강의실, 사무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인접한 서부복지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희망저축계좌 I’ 대상자 모집

3년간저축액다해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최대 1,440만원 지원…저소득층자산형성도움 기대

군산시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I’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 I’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의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간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 적립한다.

수급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는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3년이 지나면 수급자는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을 합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저금 만기 후 수급자를 벗어나야 근로소득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희망저축계좌 I’ 사업이 본인 저축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모을 수 있어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

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1년 동안 4회 진행된다. 1차 모집은 3월 4일~3월 14일이다. 이후 2차 6월 2일~6월 13일, 3차 9월 1일~9월 12일, 4차 11월 3일~11월 14일 순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2025년 희망저축계좌 신규 모집이 일정별로 진행되니 많은 대상자가 신청해서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시민 속으로… 순회 소통 나서

시정 방향·주요 정책 설명·자유토론 형식 진행…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 시정 구현하겠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본격적인 시민 소통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각 지역의 시민들과 직접 만나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직접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시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정읍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책임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4일 영원면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은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언했다.

또한 이 시장은 관련 부서 국·소장들



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소통의 폭을 한층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그레이트한(韓) 익산 여행’으로 즐거운 지역 탐방

교육발전특구 사업 ‘고장 바로알기 지역 특화 프로그램’ 일한… 참여 희망 중학교 모집

익산시가 청소년을 위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즐겁게 알아갈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선보인다.

익산시는 익산교육지원청, (재)익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지역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그레이트한(韓) 익산 여행’을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여행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고장 바로알기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의 애郷심을 높여 지역 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익산의 역사와 문화, 산업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

한다.

여행은 익산의 역사·문화·산업 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총 3개의 코스로 구성됐다.

한문화의 발상지인 익산의 뿌리 깊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유적 코스’를 비롯해 ▲익산을 대표하는 식품기업 방문과 지역 식품 산업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산업관광 코스’ ▲조선 후기부터 근대기를 배경으로 함라 삼부자집 이야기를 통해 경제 흐름을 문화로 푼 ‘문화체험 코스’가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는 오는 11일 오후 4시까지 (재)익산문화관광재단(063-918-9988)으로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레이트한(韓) 익산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의 문화와 산업을 가까이서 접하고, 내 고장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을 통해 익산을 알리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청년취업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

참여기업매월 70만 원 채용지원금·청년 최대 300만 원 지원

군산시가 관내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지난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기업의 인력수급을 돕는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만 18세~39세 청년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고용 촉진 사업이다. 올해는 9명을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에는 수습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포함해 최대 1년간 매월 70만 원의 채용지원금이,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300만 원의 취업장

려금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군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외 미취업 청년을 추가 채용하려는 기업 ▲해당 기업에서 채용된 청년이 6개월 미만 근무 중 ▲월 급여의 총액이 지원금 포함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계(063-454-2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노동약자 대상 노동 교육·법률 상담 제공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사업’ 공모 선정

정읍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노동 교육과 법률 상담을 제공하게 됐다.

주요 지원 내용은 임금체불 진정, 부당한 징계·해고 등 구제신청을 위한 노동법 관련 자문, 각종 서면 작성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노동 인식 개선을 위한 ‘노동인여름철 이동노동자(택시·버스·배달

종사자)를 위한 생수 나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최영식)가 수행하며 노동 교육과 상담을 원하는 근로자는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노동약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해빙기 대비수변도시 현장 긴급안전점검

시공중인 교량 2개소 위험요인·지반상태 등 집중 점검

새만금개발공사(이하‘公社’, 사장 나경균) 나경균 사장은 지난 4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고,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시공중인 교량 2개소의 위험요인 점검 ▲토사의 동결·융해에 따른 절·성토부 지반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아울러, 건설현장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안전 의식을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근로자의 안전모에 위험신고,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하여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점검성을 향상시켰다.

나경균 사장은 “해빙기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公社 최우선의 목표인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안전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어린이발걸음 지키는 익산·불법주정차단속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과태료 부과

익산시가 봄철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에 나섰다.

시는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단속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지며, 특히 등교 시간대인 오전 8~9시와 하교 시간대인 오후 2~4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정형 단속 폐쇄회로(CC)TV와 이동식 단속 차량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상시 추진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점심 유예 시간(낮 12시~오후 2시)은 주어지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속을 강화해 더욱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총 4,015건을 단속하고 4,8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영호남 교통중심’ 남원, 올림픽 유치 지원

최경식 남원시장, 전북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적극 환영’

춘향골 체육관·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등 훈련 거점 힘 보탠다

남원시가 도전경성의 결실로 거머쥔 ‘전북자치도,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소식이 열렬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최경식 시장은 “모두의 한계를 넘은 이번 선정 결과를 8만 남원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최 시장은 특별히 ‘국가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걸고 지방 도시들과 연대한 ‘비수도권 연대’ 전략 유치에 적극 공감하며 “지방 도시 연대 전략을 통한 IOC와 세계에 올림픽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점에 무한한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한 최 시장은 “이번 유치 결과가 단순한 스포츠 행사 유치로서가 아니라, 전북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전북이 올림픽 최종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영·호남 교통 중심도시 남원시도 최선을 다해 응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최 시장은 이번 2036 전주

하계올림픽이 전남·광주, 충청권, 대구 등 연대도시들과 협력, 추진되는 만큼 영·호남 교통 중심도시 남원 강점을 내세워 올림픽과 연계한 스포츠 종목 중 탁구, 축구 훈련시설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남원은 광주-대구 고속도로, 순천-완주 고속도로를 비롯해 KTX·SRT 등교통망이 잘 구축돼 있는 데다 오는 2030년 달빛철도까지 개통 예정이어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개최 시 연대 도시와의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에 이러한 남원시민의 강점을 내세워 기존에 조성돼있는 춘향골 체육관 주 경기장 이외에도 오는 2028년까지 남원 종합스포츠 타운에 들어설 꿈나무선수·청소년대표·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용 첨단 훈련시설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남원) 조성’ 등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하계올림픽 유치에 힘을 보태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결과를 통해 ‘균

형발전 실현’이라는 올림픽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된 만큼 그 핵심가치에 부합하도록 영호남 교통중심지 남원에서 연대 도시와의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활용한 중부권 이남 남부권 거점 스포츠를 통한 훈련시설 활성화 등으로 올림픽 유치에 끝까지 협력하겠다”면서 “2036 하계올림픽 최종 유치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의 양지인 선수를 배출할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는 지난 2022년 전북 대표 지역공약사업(문화·체육·관광 분야)으로 선정, 추진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2028년까지 국비 490억원이 투입돼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1만1천㎡ 규모로 건립된다.

여기에는 다목적 체육관과 함께 기숙사, 웨이트 트레이닝장, 스포츠과학지원센터 등의 지원시설이 들어서며, 운영은 대한체육회가 맡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청국장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 과학적 입증

‘청국장 8주 섭취, 갱년기 증상 완화 및 혈당 수치 감소 효과적’ 연구결과 발표

순창군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최근 연구를 통해 청국장이 갱년기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획기적인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양학 분야 학술지인 ‘뉴트리언츠(Nutrients)’에 논문으로 실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진흥원은 한국 전통 장류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그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장류 기능성 규명(안전성 모니터링)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연구는 그 일환으로, 원광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한아름 교수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실제로, 연구팀은 60명의 참가자들

대상으로 8주간 청국장을 꾸준히 먹게 한 후, 갱년기 증상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갱년기 증상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인 ‘쿠퍼만 지수’가 청국장 섭취 후 약 1.2배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쿠퍼만 지수는 얼굴 화관거림, 땀이 많이 남, 잠을 못 이루는 증상 등 갱년기의 주요 증상들을 숫자로 바꿔 쉽게 증상의 심한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유익 미생물의 함량이 높은 청국장이 혈당량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장내 유익균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갱년기 증상을 개선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것이다. 이는 청국장이 단순한 전통 식품을 넘어 현대인의 건강 증진에 기



여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청국장은 갱년기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열증 줄이기, 비만 예방, 면역력 높이기 등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문화재단, 지역특화 관광 선도…2년 연속 ‘우수’

완주군 지역관광추진조직인 완주문화재단이 2024년 전국 DMO 사업평가에서 종합 1위와 함께 2년 연속 우수 DMO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4일 완주군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년 우수DMO 시상식’에서 전국 22개 지자체 중 S등급 종합 1위를 차지하며,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상했다.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은 지역주민과 관광업체, 행정 등이 협업체 관광 기획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협력체

를 기반으로 주도적으로 관광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체계다.

이번 평가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의 운영성과, 주민참여도, 지역 관광 활성화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로, 완주문화재단은 주민주도로 관광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민주도형 관광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완주문화재단은 ▲나는, 일로 위게이션 ▲전문 관광인력 양성 프로그램 ▲

삼례 맥주축제 ▲소양 미디어페스타 ▲만경강 캠프인 ▲완주 로컬 굿즈 개발 및 유통 등 완주만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주민이 주체가 되는 관광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역 관광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완주형 관광 모델로서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사례가 됐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행안부 자연재해 안전도 ‘최고 등급’

A등급 획득…자연재해 피해복구비 국고 지원 2% 추가 상향

완주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이번 A등급 획득으로 완주군은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복구비 국고 지원 비율이 2% 추가로 상향되는 혜택을 받게 돼 재난복구를 더욱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위험요인(재해발생빈도, 재해피해규모, 재해취약요인) ▲재난관리(예방분야, 대응분야, 복구분야) ▲시설관리(사업추진, 시설점검·정비) 등 3개 분야, 33개 진단 지표

를 기반으로 지자체가 안전도 시스템에 입력한 실적을 중앙집단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진단 결과 완주군은 ▲재해위험요인 0.47점 ▲재난관리 0.80점 ▲시설 정비 0.95점을 획득해 종합점수 0.78점을 얻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상위 15%인 34개 지자체에 포함돼 전국 최고수준의 재난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A등급 달성은 선제적으로 추진한 적극 행정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참여자 모집

남원시가 관내 근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을 통해 청년이 월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240만 원과 남원시 지원액 240만 원, 이자를 합산해 최대 50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며 가구 중위소득 140%이하인 근로(근로자 및 사업자) 청년(18~39세)으로, 오는 17일까지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에서는 50명을 모집하며 가구소득, 가구원수, 연령 등을 고려해 전북도 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청년은 온라인 금융교육(2시간), 오프라인 금융교육(2시간), 금융 상담 및 컨설팅(1시간)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소득지출관리, 부동산 기초 등 종합금융교육 및 컨설팅 과정을 거친다.

남원시는 이를 통해 청년들의 저축 습관 및 자산 형성에 관한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 능력 제고 등 청년 생애 전반에 걸쳐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독자적 대중교통 체계 마련 ‘박차’

완전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는 완주군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이고, 독자적인 대중교통 체계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완주군은 최근 대중교통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완주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완주군 대중교통 현황 분석·문제점 도출 ▲완주·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시간선제) 추진방안 ▲완주군의 교통수단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거점 마련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중교통 전문가인 장태연 전북대 교수와 손영식 도로교통공단 부장, 김원철 충남연구원 박사 등이 함께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향후에 진행될 노선체계 개편지역인 봉동·용진방면과 고산북부 6개면에 대한 노선개편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을 통해 나타난 환승에 대한 불만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신규 관광노선, 순환노선 개발과 버스정류장 등 시설 개선 부분도 협의했다.

군은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해 올해 상반기 예정인 봉동·용진방면 마을버스 운행에 적극 나서고, 향후 고산북부 6개면에 공영 마을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문화와 교통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을 통해 완주형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평생학습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개강

남원시는 4일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관에서 개강했다.

성인문해교실은 교육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 기초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문해, 디지털 문해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남원시는 평생학습관을 비롯한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추가 개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 한글 교육 외에도 성인문해 사회전, 평생학습발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촉진할 방침이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의 지식 격차를 줄이고,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평생학습관(620-8970)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모바일 앱 ‘워크온’ 활용 걷기 챌린지 진행…보상품 제공

완주군이 군민들의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매월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walk-on)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모바일 앱 워크온은 휴대폰과 앱을 연동해 실시간으로 참여자의 걸음 수를 측정한다. 워크온 내 완주군 커뮤니티에 가입한 완주군민 및 완주에서 종사하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매월 진행되는 챌린지에서 목표 걸음 수 달성 및 완주군 관내 사진인증을 완료한 참가자에게 보상품을 제공해, 지역주민의 관심도를 높여 지속적인 걷기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매월 진행되는 걷기챌린지 참가를 원할 경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walk-on) 앱 설치 후 완주군 함께 걷는 완주 커뮤니티 가입, 챌린지 화면에서 ‘예약하기’ 또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스마트폰 배터리를 60% 이상 충전 후 데이터를 켜 채 소지하고 걸으면 된다.

자세한 가입방법이나 문의사항은 완주군 보건소 건강증진팀(290-3005, 30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 농성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지난 1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단식농성은 지난달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윤석열 대통령 파면 및 국민의 힘 해산 촉구 결의문’의 연장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국민의 힘 즉각 해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헌법 전문에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르고 있다”며, “106주년을 맞는 3·1절부터

민주주의 수호의 결연한 의지를 전하기 위해 윤석열이 파면 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독재 체제를 구축의 야욕을 드러내며, 질차와 명분도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을 침탈하려는 내란 수괴”라고 비난했다. 이어 “단식을 통해 우리 완주군민들의 결연한 뜻을 전하고, 즉각적인 파면과 동조세력인 국민의 힘의 즉각적인 해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단식 농성에는 유익식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군의원도 함께 동참할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처리될 때까지 24시간 지속할 방침이다. 이주갑 의원은 완주군의회 한 칸에 마련된 단식농성장에서 의원 본연의 의무를 다해가며, 4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징수

순창군이 이달부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다.

이번 징수 활동은 군 재무과와 경제교통과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성실납세 의식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순창군은 지난 2월 중 자동차 관련 체납자들에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국내 예술축제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 전통문화 축제인 남원 춘향제가 오는 4월 30일 개막을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춘향제는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소리의 고장이자 국악의 성지로 손꼽히는 남원의 특색을 살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소리와 기술이 융합된 ▲한국 소리의 소리 ▲세계의 소리 ▲문화의 소리를 메인 테마로 100여 가지의 다양한 공연을 구성,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가장 대표적인 행사인 춘향선발대회는 전야제의 성격으로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로 춘향제의 화려한 포문을 열

예정이다. 시민들과 함께 꾸며가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대동길놀이에는 <춘향전>에 나오는 명장면들을 각색해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일주일 간의 축제 기간 동안에는 현대국악과 대중가수 콘서트인 <일장춘몽 콘서트>가 펼쳐진다. 또한 새롭게 조성된 유채꽃밭을 통해 남원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남원 춘향제도 착한 먹거리 축제로 준비된다. 백종원 요리연구가와 함께 자리잡은 바가지요금 없는 착한 축제 먹거리 개발사업도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더본존’과 ‘바배큐존’을 운영한다. 이에 더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향토음식 푸드코트



도 마련돼 눈과 귀와 함께 입도 즐거운 축제로 자리매김한다는 복안이다.

소통하고 체험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신설되는 프로그램도 있다. ‘소리’를 주제로 한 댄스·악 경연대회, 요점도시 유채꽃밭 등이 새롭게 관람객 맛을 채비를 마쳤다. 축제 기간 ‘춘향 세일 페스티벌’을 더해 관람객은 물론 지역 상인들에게도 다양한 쿠폰과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NH농협은행 김제시지부,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NH농협은행 김제시지부(지부장 김유현)가 지난 4일 '2024년도 김제시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김유현 NH농협은행 김제시지부 지부장, 소순지 김제시금고 지점장, 김재훈 회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번 시가 전달받은 기금은 7,694만원으로 양 기관 간 공동협약에 따라 지난해 1년간 김제시청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와 보조금 전용카드, 보택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사용액의 0.1~1.0%를 적립한 것으로, 농협 김제시지부가 매년 시에 전달하고 있다.

김유현 지부장은 "김제시와 제휴를 통해 적립된 기금이 지역발전에 사용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펼쳐 나가는 금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제=윤봉기 기자



사법연수원 26기 연세대 동문회, 정읍 인재 육성 위해 장학금 기탁

사법연수원 26기 연세대학교 동문회(윤정수 변호사 외 15명)가 지난 1일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동문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정읍 출신 윤정수 변호사의 추천으로 진행됐다. 동문회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정읍 시티투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한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윤정수 변호사는 "단순한 진북 행사를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기획했다"며 "이번 장학금이 지역의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문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이사장은 "귀중한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사법연수원 26기 연세대 동문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기부금은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꿈을 이루는 데 소중히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전주시검 정읍지청·청소년범죄예방위, 도서 기탁

장명동 지역아동센터 8곳에 총 3000여 권 어린이 도서 기탁...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 좋은 하루"

전주시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김윤정)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정읍지구(지구장 황명현)가 지난달 28일 장명동을 방문해 지역 아동들을 위해 3000여 권의 어린이 도서를 기탁했다.

이들은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8곳에 도서를 배분하고 한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방문해 아이들에게 책을 전달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김윤정 지청장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



전주시방검찰청 정읍지청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정읍지구가 지난달 28일 장명동을 방문해 지역 아동들을 위해 3000여 권의 어린이 도서를 기탁했다

란다"며 "아이들과 함께하며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 좋은 하루였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기부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정 동장은 "어린이날 선물처럼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 같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준 전주시방검찰청 정읍지청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정읍지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완주FCU15, 2025 금석배 전국중학생 축구대회 우승

13년 만의 정상 탈환...강일찬 감독 "힘들었지만 끝까지 믿고 따라준 학생들 고맙고 자랑스럽다"

전북 축구의 명문 완주중학교 축구대표팀 완주FCU15가 2025금석배 전국중학생 축구대회에서 파란을 일으키며 정상에 등극했다.

완주FCU15는 지난 주말 군산시 월명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25금석배 전국중학생(U-15)축구대회와 2025 금석배전국중등(U-14)대회를 모두 평정하는 기염을 토했다.

1992년 시작돼 33년의 역사를 가진 금석배에서 1995년 창단한 완주FCU15는 2012년 우승이후 13년만

에 정상을 탈환하는 등 30년에 걸쳐 다시 한번 전통의 축구 강호임을 증명했다.

또한 디펜딩 챔피언 U-14 유스컵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완주FCU15 강일찬 감독(44)은 "힘들었지만 끝까지 믿고 따라준 그 리고 이루어낸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고맙고 또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중학교 축구대표팀 완주FCU15가 2025금석배 전국중학생 축구대회에서 파란을 일으키며 정상에 등극했다



익산 함열여고, 전북 최초 성인반 18명 입학

전북 최초로 일반계고에 성인반을 편성한 익산 함열여자고등학교(교장 송해영) 입학식이 지난 4일 오후 학교 강당에서 개최됐다.

특히 1학년 입학생 119명 가운데 18명은 나이가 지긋한 성인반 입학생들로 눈길을 끌었다. 성인반 최고령자는 83세이며, 평균연령은 69세다.

함열여고 성인반은 그간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갈 곳이 없던 익산 문해교육 어르신들이 서거석 교육감에게 '우리도 고등학교에 진학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성인반 입학생들은 3년 동안 ▲교복 지원 ▲무상 교육 ▲중식 제공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체육대회 등 모든 학사 일정 참여 등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복지 혜택을 받는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성인반을 운영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례로,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김태령 어린이, 남원시에 기부금 50만 원 전달

남원시는 지난달 28일 남원시에 거주하는 김태령 어린이(2세)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50만 원을 남원시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태령 어린이의 부모는 지난해부터 아동의 생일을 기념해 기부를 시작했으며, 올해도 아이의 성장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기부를 이어갔다.

부모는 "아이가 나중에 기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을 때, 지금의 작은 나눔이 의미

있게 다가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남원시 관계자가 함께 자리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노일환 행정복지국장은 "어린 나이에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라며, "기부금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한국희망교육개발원 김경희 원장, 고창사랑기부제 300만원 기탁

고창군 고창사랑기부제에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한국희망교육개발원 김경희 원장이 300만원을 기탁하여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김경희 원장은 "평소 고창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창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김경희 원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금을 소중하게 사용하여 고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고창사랑기부제는 고창 주민과 출향민들이 자발적으로 고창 발전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기탁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지역사회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올해로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창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무주군 농민회, 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 기탁

무주군 농민회(회장 최연수)가 지난 4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무주군 농민회 임원진들과 무주군을 찾은 최연수 회장은 "지역은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고 농업환경 또한 기후 위기다, 고령화 해서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서 희망을 본다"라며

"오늘 전달하는 장학금이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업을 뒷받침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농민회가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주군 농민회는 지역 농업 발전과 농민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장학금 기탁 등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주)씨원팩토리, 완주군 취약계층 아동 위해 장학금 기탁

주식회사 씨원팩토리(대표 이나리)가 지역 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취약계층 아동에 장학금을 지원해 달라며 완주군 드림스타트에 100만 원을 기탁했다.

봉동을 둔산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 대표는 평소 취약계층 아동, 장애인 등 지역사회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고민하던 중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온정을 나눴다.

이 대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멋지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이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우리 함께 해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회용컵,빨대 no!



텀블러, 다회용기 사용



비닐봉투no!장바구니ok!



세탁비닐no!



일회용 수저, 포크 no!

〈一事一言〉



한국 극우 기독교의 뿌리, 이승만을 캔다(1)

주진오

역사학자·상명대 명예교수

선교사가 설립한 배재학당을 졸업한 이승만은 1898년 만민공동회에서 연사로 나섬으로써 대중적 스타가 되었지요. 그는 1899년 1월 9일 박영효 역모사건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권총 탈옥을 시도했다가 붙잡혀 탈옥미수죄로 감옥생활을 했는데, 그는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감옥 안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

다. 도서관과 학교를 운영하였고 신문 기고와 번역서 발간도 가능했어요. 원고 집필도 할 수 있어 그의 대표 저작인 『독립정신』도 감옥에서 집필한 것입니다. 그는 1899년경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독립정신'에서 그는 서구열강의 정치제도를 수용하고 친밀한 외교를 주장했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것을 역설한 이유는, 서양 국가들이 부강한 이유를 기독교에서 찾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에게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었습니다. 1908년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환이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으로서 일제 침략을 옹호해 왔던 미국인 스티븐스를 처단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승만에게 법정 통역을 요청했으니, "예수교인의 신분으로 살인재판의 통역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어요. 오히려 그는 현지 한글신문이었던 <공립신보>에 기고하여, "감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오히려 서구 국가를 적으로 돌리게 되어 그들이 일본과 더더욱 밀착해 일본을 도우는 꼴이며, 독립에 도움은커녕 해악이 된다"고 비판

하였습니다.

그는 졸업 후 1910년에 귀국하여 YMCA에서 교육 활동을 하다가, 1912년 세계감리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하와이에서 『한국교회핍박』을 발표하여 일본에 대한 의열투쟁과 군사적 행동을 비판하면서 기독교를 통한 외교독립론을 주장했어요. 1925년 이승만의 국내 지지자들은 흥업구락부를 창립해서 일제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농촌사업을 진행했습니다. 1938년 흥업구락부는 대규모 구속되어 해체되었는데, 검거된 회원들은 전향한 뒤 일제에 협력하였고, 단체의 모든 자산을 국방헌금으로 납부했어요.

그 후 신우희의 주도로 「적극신앙단」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의 영향을 받아 미국식 민주주의와 고전적 자본주의의 및 공산주의를 비판했어요. 「적극신앙단」은 전체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념적 좌표는 국가사회주의, 즉 파시즘이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거친 '친미파' 상당수가 반미파, 곧 친일파로 변신하여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규정하고 백인사회와 선교사들의 인종차별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대동아전쟁'은 동양인의 생존권과 자위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의 전쟁으로 규정되었어요. 해방이 되자 일본의 편에서 미국을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인과의 네트워크가 강력한 사회적 자본으로 급변하여 미군정의 특권적 일부로 편입되었습니다. "친미적

이면서 반공적인 세력의 발견과 육성"이 필수적인 과제인 미군정과 자연스럽게 융합되었어요. 한국 기독교는 미군정을 지지했고, 가장 보수적인 이승만 진영을 압도적으로 응원했습니다. 좌익 세력과 무력충돌까지 서슴지 않았지요.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었던 서북청년단이 가장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미군정 및 이승만 정권 시기에 한국 기독교는 많은 후원과 특혜를 받았어요. '사실상의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했고, 자유당은 '기독교 정당'으로 통념화 되었습니다.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중에 개신교 신자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지요. 기독교를 나라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승만은,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이윤영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미군정하에서 공휴일로 지내던 성탄절을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대로 공휴일로 인정했습니다.

정치지형 변동의 종교적 결과로 "개신교의 급팽창"과 "종교시장 내 개신교의 점유율 확대"가 나타났지요. 1945년 당시 15만이 안되던 신자 수가, 1955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하여 불교에 이어 제2의 교세를 가진 종교로 급성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KNCC)는 2대 대선에서 이승만 지지운동을 벌였습니다. "기독교계의 요청을 수용하여도 불구하고, 군복제도를 설치했으며, 국가의식을 기독교식으로 지령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1952

년 정부통령선거에서 무소속 함태영 목사가 당선되었고 이기붕이 자유당의 제2인자로 떠올랐는데요. 개신교 인맥이 핵심 실세를 이루면서, 자유당의 지도자들 모두 개신교 신자들로 채워졌습니다. 배은희는 장로교 목사, 이승만은 감리교 장로, 이기붕은 감리교 권사였어요. 1954년 12월 기독교방송이 개국했는데, 교회의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고 교세를 신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와 천주교만의 참여로, 1951년 초부터 군종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지요. 오로지 개신교에만 허용된 형목제도는 타 종교의 참여가 봉쇄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장례식도 개신교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기독교계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도 "국군장병의 '위령제'를 '추도식'으로 개칭할 것", "충영탑"이란 명칭을 '기념탑'으로 변경할 것", "33인 합동추념식"에서 '분향'을 실시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지방소멸 위기 체류형 관광으로 극복하자

전북자치도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벗어나 관광객이 오래 머물도록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정주 인구 확대까지 연결하는 전략이다. 이는 관광의 단순한 소비적 측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으로 주목할 만하다.

전북은 현재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위케이션, 미식관광, 야간관광, 한 달 여행하기 등 다양한 장기 체류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살린 체험형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전북은 단순히 관광객 수 증가에 만족하지 않고 체류 일수와 관광소비액을 높여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개소한 위케이션 거점센터는 117개 기업, 2,070명의 이용객을 유치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더욱 다양한 위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전북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배움형 위케이션'을 도입하여 차별화를 꾀한다.

배움형 위케이션은 국악 배우기, 전통장 만들기, 승마 체험 등의 전통문화 체험뿐만 아니라 미식 투어, 자전거 여행, 별빛 체험 등 MZ세대를 겨냥한 감성 레저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는 야간관광을 전북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전북의 경쟁 중 하나인 미식관광 역시 체류형 관광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

다. 도는 한국 음식문화의 본고장으로서 '전북 맛 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비빔밥(전주), 짬뽕(군산), 젓갈(부안), 전통 장(순창) 등 지역 대표 음식을 스토리텔링과 결합해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 특색을 살리면서도 관광객들에게 깊이 있는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특히 '한 달 여행하기' 프로젝트는 체류형 관광의 대표적 사례로, 단기 여행이 아쉬운 이들에게 장기간 머물면서 지역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관광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대한 애착과 유대를 형성해 궁극적으로 정주 인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도시의 활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장기 체류형 관광 모델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전북이 추진하는 체류형 관광 정책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단안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지역의 삶을 경험하고 경제적 기여도를 높이며 나아가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전북의 이러한 노력이 성공한다면 이는 다른 지역에도 모범 사례로 작용해 전국적인 지방 활성화 전략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체류형 관광은 단순히 관광산업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인구 문제 해결을 동시에 겨냥한 종합적 해법이 될 수 있다. 전북이 추진하는 다양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적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재열전



귀신사 석탑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유적건조물, 불교, 탑
-지정일- 1974년 9월 27일
-시대- 고려시대
-소재지- 김제시 금산면 청도6길 40 (청도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월간우) 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봄봄봄 그리고 봄 / 김 용 택

꽃바람 들었답니다
꽃잎처럼
가벼워져서 걸어요

뒤뚱치를 살짝 들고
꽃잎이 날까 새싹이 날까

사뿐사뿐 걸어요

봄이 나를 데리고
바람처럼 돌아다녀요

나는 새가 되어 날아요

꽃잎이 되어
바람이 되어

나는 알아요 당신께 날아가요
나는 꽃바람 들었답니다
당신이 바람 날았어요

시인 약력 : 1948년 임실 진매마을 출생. 임실 마암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를 썼다. 교직기간 동안 아이들의 시를 모아 펴내기도 했

다. 1982년 '창작과비평사'에서 펴낸 21인 신작 시집 '꺼지지 않는 햇불'에 '섬진강 1'의 8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6년 '김수영문학상',

1998년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했다. 2001년 독립단편영화 '들'에 이어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전북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의 뉴-스

전북타임스 신문!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3 신문구독 282-9600

완산방커 더스페이스, 버려진 방공호에서 관광명소로 탈바꿈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던 버려진 방공호에서 문화관광시설로 탈바꿈한 완산방커 더스페이스(이하 완산방커)가 전주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달 5일 개관한 완산방커에 대한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지난 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총 3만1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운영 첫 달 완산방커에는 평일 하루 평균 770여 명, 휴일 평균 2240여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개관 첫 주 5000여 명이었던 주간 방문객수도 2월 마지막 주에는 2배에 가까운 1만739명이 다녀가는 등 매주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완산방커를 찾은 전체 관람객의 45%가 타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집계돼

이곳이 전주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개관에 따른 누적 수입금도 약 1억 원에 달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는 완산방커를 찾은 방문객들이 인근 음식점과 카페 등을 이용하면서 집계된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완산방커는 지난 1973년 전시 행정 대피용 목적으로 만들어져 2006년 용도를 잃고 버려진 방공호를 전주시가 재활용하여 새롭게 탄생시킨 곳으로 '폐쇄된 완산방커와 연결된 다중우주를 관람객이 체험한다'는 테마의 미디어아트 문화관광시설이다.

연면적 3178.62㎡에 관람 길이 280m,

높이 3~5m의 규모의 완산방커는 LED와 거울로 이루어진 대표 콘텐츠 '차원의 문'을 포함한 10개의 미디어아트 콘텐츠룸과 카페, 기념품판매점으로 구성됐다.

완산방커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입장료는 성인=1만 원, 청소년=8000원, 어린이=5000원이다. 전주시민들은 2000원 할인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으며, 시는 현재 개관을 기념해 입장권 1매 구입시 1명을 추가 입장시켜주는 특별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방공호라는 시설 특성으로 인한 불편한 방문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완산방커 부설주차장 조성 ▲완산초 인근 임시공영주차장 확대 ▲전주전 노상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206편의 주차 공

간을 추가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는 태조로 승강장과 완산방커를 오가는 셔틀버스(1대)도 운행하고 있다.

시는 향후 관람객 편의를 위해 완산방커 진입로(완산초-완산방커-거성연립주택) 구간 도로를 기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옥마을 중심의 전주 관광이 완산방커를 시작으로 한빛마루공원 사업,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사업 등을 통해 더욱 확장되고, 구도심 전역으로 관광인프라가 확장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